<합격수기>

13학번 이○섭

저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공부의 방향성,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는 오수째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일찍 공부의 방향성이나 불안감 등에 대비를 했다면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공부의 방향성,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공부의 방향성과 공부의 양(올인이고 개념, 기출 분석이 어느정도 된 실력을 기준으로 월을 계획하였습니다.)

① 개념 공부(기본서 or 강사 개념자료) ← 1~2월
② 기출 분석(단, 스터디 필수, 인원은 3~4명) ← 3월
③ 5강사 작년 모의고사 풀이&분석(단, 스터디 필수, 인원은 3~4명) ← 4~5월
④ 1~3번 반복 복습 ← 6~8월
⑤ 올해 임대성 하프모의고사 풀이&복습 ← 5~8월
⑥ 올해 5강사 모의고사 풀이&분석&복습(스터디 필수, 인원은 3~4명) ← 9~11월
(5강사는 대성,현민,창주,양동,현웅)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6번만 소화를 하신다면 임용시험을 합격할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단, 제 기준으로 복습은 다섯 번 이상은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 1~2월에 개념 공부를 두 번 보셨으면 4번에서 최소 세 번은 봐야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험은 11월 임용시험 날에 내가 얼마나 문제를 풀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4~5월에 모의고사 문제 풀고 분석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11월에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 풀지 못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던지, 아니면 복습을 통해서 개념이나 풀이과정을 시험보는 날까지 가져가던지 둘 중 하나는 되어야 합니다.

강사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마 1~6월은 개념강의, 7~8월은 문제풀이, 9~11월은 모의고사로 되어있을 겁니다. 7~8월의 문제풀이 하는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1~6번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강사 모의고사 자료를 올해 제외하고 2~3개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양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계별 학습 방법
1단계 :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
→ 인강으로 개념강의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단, 임대성 강의 제외)
물론, 인강 듣지 않고 스터디, 독학, 학교 수업 등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임용 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아마 빨리 합격해서 임용판을 떠나는

것일 겁니다. 인강비용이 부담된다면 같이 들을 사람을 구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적용이나 개념 정의, 정리 등이 연계가 되지 않을 때
→ 임대성 개념강의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적용이나 정의, 정리 등의 연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강 듣지않고 스터디, 독학, 학교 수업 등을 통해서 공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단계 : 개념알고 정의, 정리 등의 연계가 가능한 상태
→ 이때부터 인강을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터디를 구해서 '공부의 방향성' ②'기출분석'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강사 개념강의를 들으셨다면 대부분의 강사가 기출문제까지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본인이 들은 강사의 풀이나 본인만 아는 풀이방법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들이 기출문제에서 같은 풀이방법으로 푼 문제도 있고, 풀이 과정이 다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비교하여 출제 교수님이 어떤 모범답안(풀이과정)을 생각하였는지 고민해보고 해당하는 모범답안의 방법으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임용시험에서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기출문제를 풀 때 모범답안이 아닌 본인만 아는 방법으로 풀었다면 변형된 문제에서 그 풀이방법이 적용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삼수까지 하면서 가장 큰 착각을 했던 부분이 '분석'과 '이해'를 혼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풀이과정을 이해했으니까 기출 분석을 했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냈을 때 못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분석'은 풀이과정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 그 풀이 과정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었는지, 어떠한 것을 물어보면 해당하는 정의, 정리, 풀이방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형태의 문제인지,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건지 등을 하는 것이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포함 3~4명의 스터디원을 구해서 '기출 분석'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단계 : 기출분석까지 되어있는 상태(이때부터 '공부의 방향성' 1~6번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마찬가지로 인강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터디 구해서 '공부의 방향성' ③ 작년 5강사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방법이 회차로 푸는 방법과 유형화 자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론 회차로 푸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때부터 임용처럼 시간재고 시험처럼 연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11월에 올해 강사 모의고사를 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성,창주,현민 세 강사는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삼수때 까지 한 강사만 깊이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강사만으로는 임용 전체 범위를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세 강사만 해도 임용 저체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f) 저는 4단계부터 임용 합격이 가능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단계 : '공부의 방향성' 1~6번이 되는 상태
→ 제가 사수 때 '공부의 방향성'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데요.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계산실수, 시간배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때는 최대한 강사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 재고 풀려고

하였고 인원을 구해서 실제 시험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계산 실수는 있어서 완벽한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5단계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임용 합격할 수 있는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cf) 노량진 관련하여 굳이 안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지역에서 스터디 구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5단계의 상태인데 시험장에서의 긴장, 계산실수, 시간배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9~11월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다녀오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수일 때 9~11월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들었는데요. 좋았던 점은 정말 임용 시험날처럼 시험 분위기가 비슷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산실수, 시간배분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수때라 제 능력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수교론 공부방법
개인적으로 김민아 인강 1년 커리큘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강사 문제풀기 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인강 1년 커리큘럼만 하고 복습하면 충분히 임용 시험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커버 안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99%는 못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독학으로 기본서 책 암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 적용 측면에서 9~11월 모의고사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 교육학 공부방법
개인적으로 두꺼운 책, 인강 듣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지수 9~11월 모의고사 자료만 구해서 그것만 반복해서 암기하였습니다. 이때, 스터디를 통해 제가 쓴 논술 답안을 다른 스터디원에게 채점을 받고 피드백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답안 쓰는 연습과 모의고사 자료 정리한 것만 암기하면 충분히 임용 시험이 커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커버 안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99%는 못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학이 아예 처음이라면 바로 논술 답안을 쓰는 연습보다는 교육과정,평가,교수학습 등 수형도로 되어있는 개요도를 먼저 읽어보고 외운 후 모의고사 자료 암기를 하고 모범답안도 읽어본 후에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학생을 기준으로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1~3단계까지 2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4학년 때 4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몰라서 재학생일 때 하지 못했지만, 임용에 뜻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을 들으실 때 개인적으론 선행학습을 하고 수업을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